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눈앞의 일이 급한데 관하라시니

질문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 주인공에 관하라 하시기만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답변 이 세상에는 어느 집 쳐 놓고 문제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천에 달해요. 자기가 한 거만큼 그것이 그냥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이건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런 문제, 또는 유전성, 인과응보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인연, 그 인연줄을 끊지 못하고 얽히고설켜서 앨 쓰는 걸 많이 봅니다. 이건 다 누구의 짓입니까. 다 자기가 한 것만큼입니다.

모든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어떤 우환 가환, 또 병도 그래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인간의 의학으로써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까닭에 그런 걸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끊어 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자기 근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르고 "나는 지금 급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어서 왔는데 주인공 찾으래.", "저이는 저 남의 급한 걸 모르니깐 그렇지. 그래, 저 말이 나와?"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당신네들이 모르니깐 그럽니다. 모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게 되면 바로 우환, 가환, 병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용광로에다가 놓는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릴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그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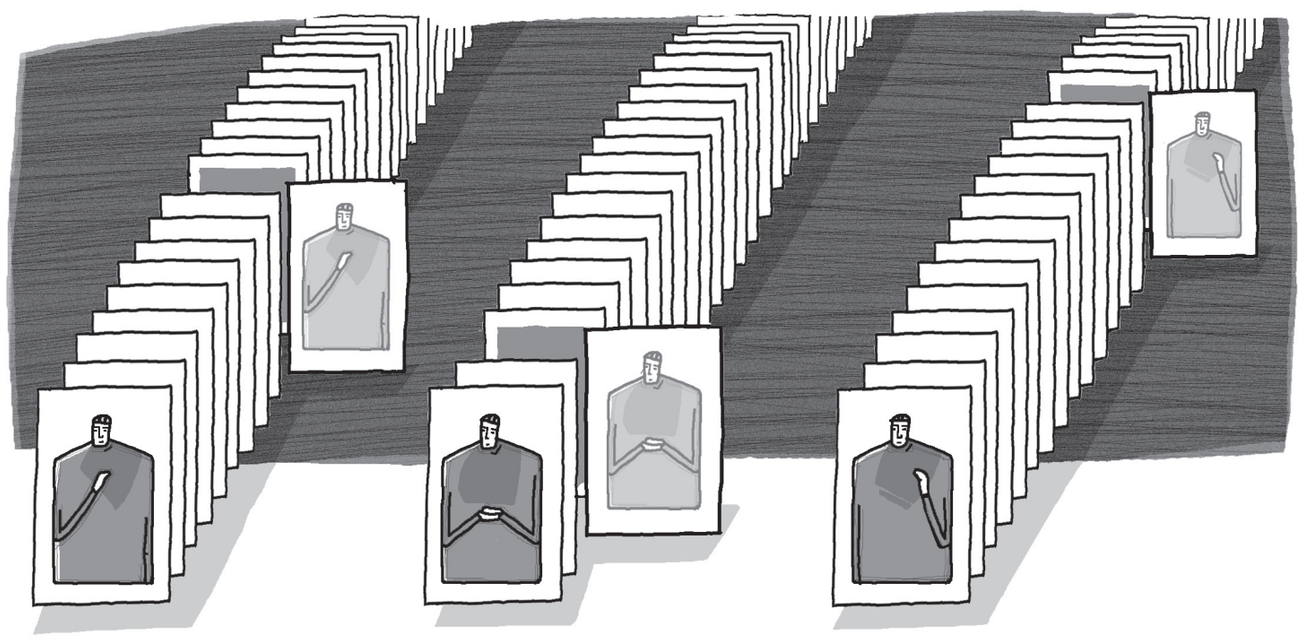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물론 나부터라도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냐고. 아니, 그게 바로 공부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 그것이 녹아 버리지, 만약에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 년 동안 앉아서 고행하실 때 그 모두 항복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복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시고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받은 거라 이겁니다.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거죠.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탄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온 거고, 무슨 이유가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그러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내놔야 그것이 아주 철두철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철두철미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미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미한 겁니다. 내가 안으로 눈이 밝고 청림해서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내가 부릴 줄 알고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미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이 자원에 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그런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믿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여러분은 낱낱이 생각해서 참 주저주저하고 '야, 이렇게 된 도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거 조금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겁니다.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걸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아이구,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하고 어느 때 보니까 항상 봄처럼 웃고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탄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주인공이 모든 업보와 그 인과응보와 유전을 다 녹여 주고 삶을 보람 있고 생동력 있게 끌고 가는 바로 길잡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비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질문 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신에게 구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들처럼 부처님께 빌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인지요.

답변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인 까닭에 어느 한군데 종교로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버스라면 그걸 공기 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 주머니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습니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 가지고 네 종교가 어떠니 내 종교가 어떠니 하고 탄압하고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이라면 어찌 한세상을 폭넓게 위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

☞ 24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